현장 중심의 구민과 함께하는 강북구의회

강북구의회 소식

홈페이지 council.gangbuk.go.kr
강북구의회 사무국 02-901-4511~4513

제228회 임시회 폐회

강북구의회(의장 이백균)는 2019년 9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28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8월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현장방문 등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내실을 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3일부터 4일까지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어진 9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019년도 제8~10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안건 처리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를 폐회했다.

2019년도 제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2019년도 제2회 강북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장 김명희 · 부위원장 최미경 · 구본승 · 이용균 · 이정식의원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

강북구의회(의장 이백균)는 8월 26일 제228회 임시회를 개회해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후 「일본정부 경제보복 규탄 결의 대회」를 가졌다.

강북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일본정부의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의 우호관계를 훼손하는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지정 취소 조치 등 부당한 행위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북구의원들은 결의대회에서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는 대한민국과 일본의 우호관계를 훼손하고 우리 경제를 농단하려는 오만한 만행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 구의원 모두 강북구민과 함께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날 이백균 의장은 “일본정부가 행한 경제보복 조치는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대한민국과 일본의 발전적 관계를 방해하는 부당한 행위”라며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의정 현장 활동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허광행)는 9월 2일 삼양동 빈집 활용 청년주택 공급 부지를 방문하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현장활동을 통해 중점적으로 살핀 빈집 활용 청년주택은 강북구 미아동 791-1745외 1필지에 2개동(지상3층)으로 2020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고, 완공 후에는 삼양동 일대의 기존 빈집 방치로 인해 발생한 생활안전 위해, 도시미관 저해, 주거환경 악화 등의 취약점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장을 방문한 허광행 위원장, 조윤섭, 구본승, 김영준, 유인애, 이용균, 최미경 의원은 청년주택 공급 부지를 점검한 후 강북구청 관계 공무원과 주택부지 매입 절차, 주차장 확보방안, 청년주택 입주모집 및 운영주체 등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활동을 마무리 하며, 허광행 위원장은 “청년주택은 삼양동에 청년인구가 유입되고 인근 도시환경이 개선되는 등 강북구 전체가 활성화되는 첫 걸음이라 생각한다”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의원들은 청년주택사업의 혜택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